

# 광주·전남, 아이 울음 늘었지만 인구 유출 '지속'

## 통계청, '4·5월 인구동향·이동'

지역 출생아 전년비 9~10% 증가  
혼인건수 회복세 뚜렷...이혼 줄어  
5월 광주 755명·전남 83명 순유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최근 높은 출생아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국적인 출산 반등 흐름에 동참했지만, 인구 순유출과 자연감소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동향'과 '5월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71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58명(8.7%) 증가했다.

이는 2022년 4월(2만1164명) 이후 3년 만의 2만명대 회복이며, 1991년(8.7%)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은 4월 기준 증가율이다.

광주의 4월 출생아 수 역시 462명에서 508명으로 9.96% 증가, 전남은 653명에서 721명으로 10.4% 증가하며 전국적인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최근 높은 출생아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국적인 출산 반등 흐름에 동참했지만, 인구 순유출과 자연감소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구 치평동의 한 산부인과에서 환자와 임산부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전남일보 DB

오름세에 동참했다.

1~4월 누계 기준으로도 전국 출생아 수는 8만5739명으로 전년 대비 7.7% 늘었다. 같은 기간 광주는 2061명에서 2166명으로 늘어 5.1%, 전남은 2748명에서 2952명으로 7.4% 증가했다.

전국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

가고 있으며, 4월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전년보다 0.06명 상승했다.

이는 혼인 건수 증가,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 지원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출산 순위별로 보면, 첫째아 비중은 62.0%로 1.2% 상승, 반면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은 각각 0.6% 감소했다. 이는 결

혼 및 출산 연기 경향과 맞물려 자녀 수 감소 흐름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사망자 수는 전국적으로 2만8785명으로 전년보다 0.8%(225명) 증가했다. 광주는 683명에서 750명으로 9.8% 증가했으며, 반대로 전남은 1609명에서 1543명으로 4.1% 감소해 대비를 이뤘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도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이어지며, 4월 전국 인구는 8068명 자연 감소했다. 광주 역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242명 더 많아 자연증가율 -2.1%, 전남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822명이 많아 -5.6%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1.9%보다 높은 수치다.

혼인 건수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4월 혼인 건수는 1만892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9%(884건) 증가해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광주는 448건에서 552건으로 23.2%, 전남은 597건에서 637건으로 6.7% 증가했다. 1~4월 누계로는 전국적으로 7만7625건으로 1년 전보다 7.5% 늘었고, 광

주는 2113건(+11.8%), 전남은 2535건(+1.9%)으로 집계됐다.

이혼은 감소세다. 전국 이혼 건수는 4월 7299건으로 5.2% 줄었고, 1~4월 누적은 2만8778건으로 전년 대비 5.5% 감소했다. 광주는 777건에서 735건으로 5.4%, 전남은 1144건에서 1072건으로 6.3% 각각 줄며 전국 추이와 같은 흐름을 보였다.

광주·전남 지역의 인구 유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전국 인구 이동자 수는 47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9% 감소했다. 광주는 전입 1만4236명, 전출 1만4991명으로 755명이 유출됐다. 순이동률은 -0.6%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남 역시 전입 1만3608명, 전출 1만3691명으로 83명이 유출돼 순이동률 -0.1%를 기록했다. 광주는 최근 3월(-2.1%)과 4월(-1.2%)에 비해 감소 폭이 둔화했지만, 전남은 3~4월 각각 +0.5% 순유입에서 감소 전환됐다.

윤준병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롯데마트, '통근세일'** 롯데마트는 오늘부터 7월9일까지 2주간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매장에서 '통근세일'을 진행한다. 대표 상품은 '통근치킨'으로 행사카드 결제 시 60% 할인된 5000원에 판매한다. 이 밖에도 '1등급 한우 전품목', '유명산지 수박', '할라스타' 등은 행사카드 결제 시 5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롯데마트 제공

## 광주국세청, '나눔문화 실천' 사회공헌 활발

독거어르신 등에 무료급식 봉사  
직원과 소통 위한 특강도 호응

광주지방국세청은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직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해 전통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특강을 실시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국세청은 25일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분도와 만나 개미꽃동산 '사랑의 식당'에서 '사랑의 밥퍼'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박광종 청장을 비롯해 광주국세청 자원봉사단 30여명이 참여해 오리탕, 돼지고기, 흥어무침 등 정성껏 마련한 식사를 300여명의 독거·영세 어르신에게 제공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국세청은 지난 20일에는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광주국세청과 산하 세무서 직원들이 격무에서 벗어나 힐링할 수 있도록 전통예술 특강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강에선 전통예술 연출가 진옥섭 대표가 '전통예술에 사무(武·舞·巫·無)치다'라는 주제로 전통연희 노름마치(고수 중의 고수)들의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려줬다. 또 노름마치 김운태의 채상소고춤, 전통소리꾼 장보미의 판소리, '연희단 팔산대'의 신명나는 사물 판국까지 더해져 '강연 같은 공연, 공연 같은 강연'을 선보였다.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은 "다양한 봉사과 나눔의 문화를 적극 실천하고,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광주은행, 지역 주력산업 중소기업 금융 지원

광주시·기보와 업무협약 체결  
1년간 연 0.5% 보증료 지원

광주은행은 25일 광주광역시, 기술보증기금과 광주 지역 내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자 '주력산업 위기 극복 및 수출·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생활역학과 풍수의 경영' 등 다양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생활역학과 풍수의 경영 등 다양한 주제로 7월 금요일조찬 포럼을 총 3회에 걸쳐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첫 강연은 7월11일 도지에 원장이 '생활역학과 풍수의 경영'을 주제로 시작한다. 현재 수진재 역학연구원장과 화정 풍

이번 협약은 소재·부품·장비 업종 등 광주 주력산업을 영위 중인 중소기업에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것으로, 세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수출·기술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은 1억원을 특별 출연해 협약 대상 기업에 1년간 연 0.5%의 보증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보증

기금은 이를 재원으로 최대 200억원의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하고, 광주광역시시는 2년간 연 2.0%의 이차보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소재 기업이 보다 나은 금융조건으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금융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 광주경총 "7월 금요일조찬서 경영·소통 주제 강연"

## '생활역학과 풍수의 경영' 등 다양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생활역학과 풍수의 경영 등 다양한 주제로 7월 금요일조찬 포럼을 총 3회에 걸쳐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첫 강연은 7월11일 도지에 원장이 '생활역학과 풍수의 경영'을 주제로 시작한다. 현재 수진재 역학연구원장과 화정 풍

수지리학회장을 하고 있다.

이어 18일에는 문성후 박사가 '독한 리더가 조직을 살린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문 박사는 법무법인 원 외국 변호사로 한국 ESG 센터장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25일에는 김경희 원장이 '행복한 소통'을 주제로 강연한다. 현재 희망교육개발 원장으로 KBS 아침마당과 KBC 꿈지

락, MBN 동치미 등 방송에 다수 출연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7월 포럼 주제는 회원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현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경영, 리더십, 소통에 역점을 두고 강연을 준비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리더의 태도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요일조찬 포럼 참석 및 회원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회원사업부(062-654-3426)로 문의하면 된다.

최권범 기자

## 현대차 '아이오닉 5 N', 파이프스타 카 선정

## 영국 '2025 오토카 어워즈'

현대차는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 N'이 25일(현지시간) 영국 자동차 전문지 '오토카(Autocar)'가 주관하는 '2025 오토카 어워즈'에서 '파이브스타 카(Five-Star Car)' 부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오토카는 1895년 세계 최초로 발간된 자동차 전문지로, 영미권 독자 외에도 온라인판, 국제판 등을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100년의 역사를 가진 로드 테스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파이브스타 카는 로드 테스트 차량 중

모든 면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차량에게만 수여되는 상으로, 아이오닉 5 N은 뛰어난 상품성을 바탕으로 현대차 최초로 파이프스타 카에 선정되며 포르쉐 911 S/T, 스코다 수퍼브 에스테이트와 함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이오닉 5 N은 첨단 자세제어 기술, 역동적인 주행 성능, 몰입감 있는 운전 경험 등 최근 고성

능 전기차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성들을 두루 갖춰 호평을 받았다.

오토카는 아이오닉 5 N을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 표현하며 '놀라운 정도로 재미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역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극찬했다.

박소영 기자



현대차 아이오닉 5 N.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20년 연속 선정

인터넷 전남일보 www.jnilbo.com  
모바일 전남일보 m.jnilbo.com